

2021년1호(창간호)

바람대로

Vol.
01

바람대로는 자유롭고 다채로운 우리의 큰 길로,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고 함께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의 Eduletter입니다.

발행일 2021년 6월 8일 발행처 4.16민주시민교육원



- ☞ 우리의 사월 모두의 오월
- ☞ 와글와글 일상적 민주주의
- ☞ 기억해 봄, 희망을 그림!
- ☞ 함께 만드는 바람대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일곱 개의 협약기관의 약속으로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신설 직속기관으로 2021년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는 공간인 '단원과 4.16기억교실'을 복원한 <기억관>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참여로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미래희망관>에서 함께 만나요.



www.goe416.go.kr



경기도교육청
4.16민주시민교육원
416 Institu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우리의 사월, 모두의 오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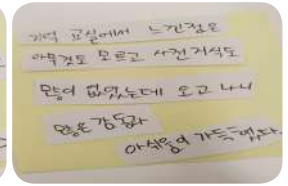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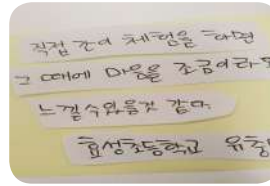
★ 4월에 이어 5월에도 우리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 시기에 수습이 되어 부모의 곁으로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 스승의 날이 있어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빈자리 때문이기도 하죠.



★ 어느 때인들 덜 아플 수 있을까요?

기억교실에서, 기억교무실에서 흔적과 추억이 남은 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작은 위로와 감사를 함께 나눕니다.



별이 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 2021년 5월 15일 촉촉한 봄비 내리는 스승의 날에,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함께 하는 어느 교사 드림 -



〈출처〉 교실의 섬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1980년 5월 18일 광주

‘화려한 휴가’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의 작전명입니다.

이에 맞선 광주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은 놀라웠습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주는 거리의 아주머니들, 병원마다 부상자를 위해 ‘헌혈’하려 줄지은 사람들.

그날도 지금도 ‘모두의 오월’입니다.





와글와글 일상적 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OOOOO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교실의 심포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확산 및 활성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 소비자,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4.16과 민주시민교육의 관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함께 구하지 않았으므로 외면하고 망각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 4.16교육 전문가 포럼, L선생님

“우리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더 높은 곳을 향하도록 부추기지만 2014년 4월, 이러한 개인의 욕심과 사회문화가 큰 아픔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저 또한 여전히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이라 늘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기억하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 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때로는 지금이 더 많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 일곱 번째 봄에, 인천 시민 J군

민주시민의식 이러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성숙해지며 성장합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내 탓이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조금 성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과 공감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참여, 실천의 힘을 키우는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4.16 세월호 참사가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교실속 민주주의, **와글와글**

I'm Singer-Song Writer

활동목표

‘너의 상황’을 ‘나의 삶’으로 상상하여 새롭게 창작하기

활동방법

- ① (5분) ‘아직, 있다 - 루시드폴’ 뮤직비디오를 감상
가사카드 순서 맞추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미리 언급하지 않음
- ② (10분) 모둠별 가사 카드 순서 맞추기
- ③ (5분) 개인별로 가사를 편지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상황을 추측
- ④ (7분) 짝끼리 혹은 모둠끼리 추측한 상황을 서로 나눔
- ⑤ (5분) 가사의 편지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답장을 하는 가사 작성.
모둠별로 빈 카드에 나눠서 작성하거나 개인으로 작성 가능
- ⑥ (10분~15분) 모둠별로 만든 가사를 함께 전체 공유

활동자료 다운로드

4.16민주시민교육원 홈페이지-열린마당-부서자료실-교육연수부-
‘바람대로1호 활동자료’

기억과 공감으로 확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아티스트, 작가들이 추모의 글, 그림, 곡을 만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크거나 작게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나의 삶에 투영하여 연대로 참여하는 삶’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 민주주의,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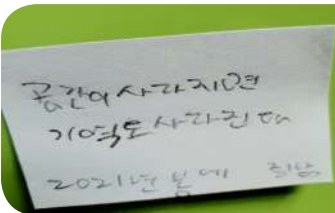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우리는 얼마 전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다녀왔던 안양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지구살리기’ 한 장면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동네를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을 ‘플로깅’이라고 한대요.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원격수업하는 날엔 문치와 두 자매가 함께 아빠랑 플로깅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민주시민이지요? - 2021년 5월, 안양 시민 K 패밀리 일동 -



기억해 봄, 희망을 그림!

참사를 기억하고 아픔을 공감하여 참여와 연대로 희망을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을
개인, 가족, 단체로 방문하여, 추모 문화를 확산하는 **탐방 학습공동체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 탐방학습공동체 (부천·시흥·용인·안성·여주·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융합과학교육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성남·과천교육도서관 등)



경기도교육청
4.16민주시민교육원
416 Institu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경기교육 주체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봅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약 4만 8천여 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교육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교육과정 및 발전방안 설문조사

조사방법 홈페이지, SNS, QR코드

조사기간 2021.5.6.~5.12

응답자(총 47,761명) 학생(17,720명), 교사(7,810명)
학부모(22,2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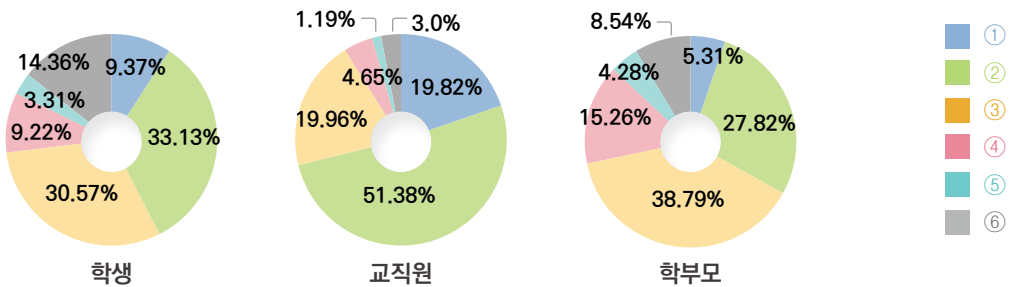
주요 설문 내용

- 세월호 관련 인식
- 4.16민주시민교육원 관련 인식
- 4.16민주시민교육원 교육활동 운영 관련

Q1

‘4.16세월호 참사’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⑤ 매우 그렇지 못하다 ⑥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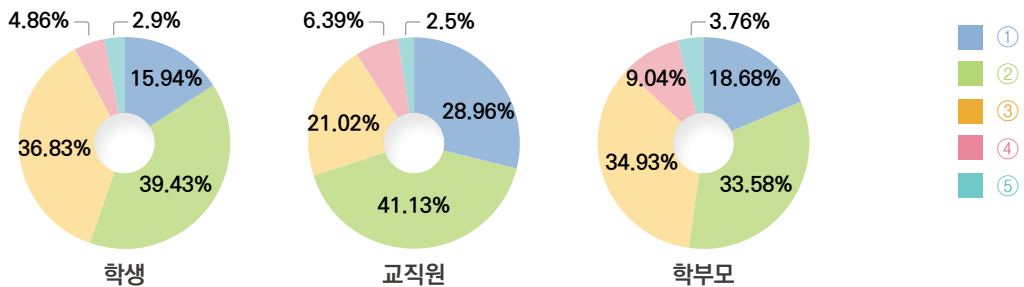
A1

학교 교육 변화 체감도에 대한 긍정응답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순으로 높았습니다. 교육 가족 모두가 긍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Q2

‘4.16세월호 참사’와 민주시민의식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관련있다 ② 대체로 관련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련없다 ⑤ 전혀 관련없다



A2

교육공동체 모두 보통을 포함한 긍정응답이 학생 92.2%, 교직원 91.1%, 학부모 87.2%였습니다.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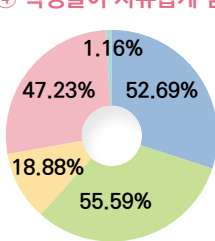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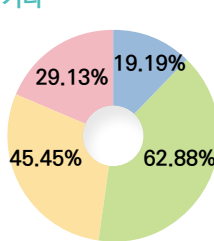
Q3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운영하길 바라는 프로그램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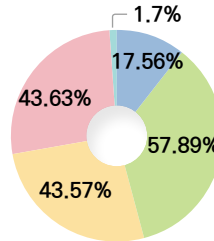
- ① 단원과 4.16기억교실 탐방 ②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성찰하고 탐색 ③ 열린 민주시민교육
④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⑤ 기타



학생



교직원



학부모

- ①
②
③
④
⑤

A3

‘세월호 참사의 의미 성찰과 탐색’이 교육공동체 모두가 바라는 운영 방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기억과 약속의 길을 만들어가는 아카이브와
큰 울림이 있는 살아있는 배움터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합니다.

학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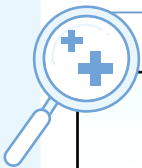
교직원 대상

학부모·시민대상

- 청사담 과정(청사담=청소년 4.16을 담다)
- 청시민 과정(청시민=청소년+시민)

- 단원과 4.16기억교실 탐방
- 4.16민주시민 역량강화 과정
- 시민교육 기획가 역량개발 과정

- 공감과 회복의 민주시민역량 과정
- 4.16 학부모·시민 실천 프로젝트



청사담 과정

1-1. 기억교실을 만나다

단원과 4.16기억교실 탐방으로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의미 성찰

1-2. 4.16기억을 걷다

단원과 4.16기억교실, 단원과 고래의 꿈, 기억과 약속의 길 탐방으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바로 알기

청시민 과정

2-1. 4.16 불을 만나다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의미를 돌아보고 함께 나누기

2-2. 토·토·가(토의·토론 가능하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민주시민 역량 키우기

2-3. 기본권을 아는 것이 기본!

기본권을 알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태도 갖추기

2-4. 4.16 시민으로 살다.

일상의 위험에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힘 키우기

2-5. 참지말고 참여해!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참여하기

2-6. 글로공감

문학작품을 읽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 키우기

2-7. 대나무(대화)로 나눌 수 있어, 무슨 갈등이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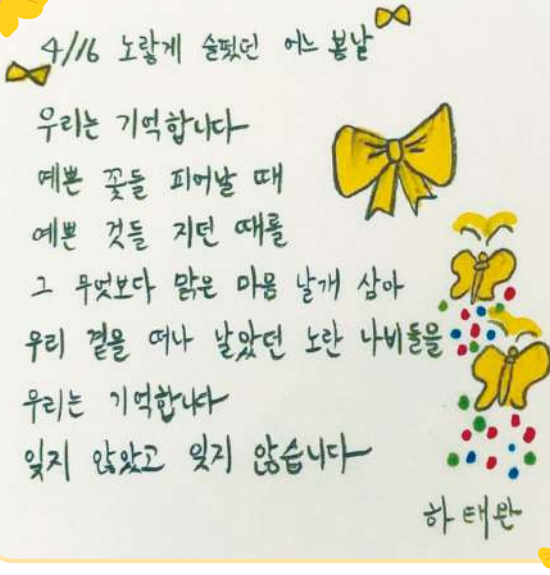
질문, 대화, 토의, 토론으로 갈등을 풀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경기도교육청
4.16민주시민교육원
4.16 Institu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함께 만드는 바람대로



‘모든 순간이 너였다’의 저자
하태완님께서 ‘바람대로 1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에듀레터 ‘바람대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바람대로 2호에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사진, 그림, 이야기를 기고해주세요.



‘바람대로 2호’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참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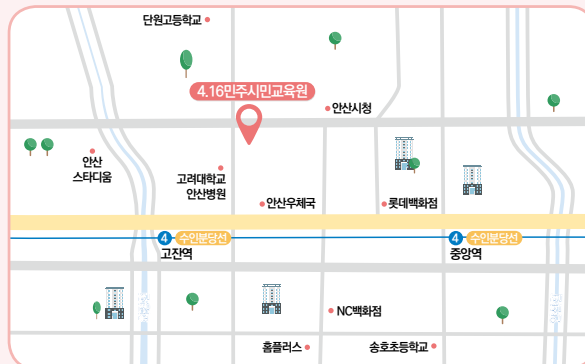
-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 후기
- 일상적 민주주의 실천 사례
- 4.16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학교 실천 사례
- 가족, 모임, 동아리, 세미나, 포럼 등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 사례

참여 방법

4.16민주시민교육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참여게시판 ▶
글 제목을 ‘바람대로 2호 참여’로 작성하여 게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찾아오시는 길



4.16민주시민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goe416.go.kr>

교육원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웹리플릿 https://wzine.kr/goe416_program/index.html



경기도교육청
4.16민주시민교육원
416 Institut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